

진도 해상 여객선 침몰...290명 생사불명

인천~제주 고교 수학여행단 등 459명 탑승
164명 구조 5명 사망...해경 생존자 탐색 총력

▶ 관련기사 2·3·6·7면

고등학생 등 승객 459명을 태우고 운항하던 여객선이 침몰, 오후 8시 현재 290명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 대형 해상 참사가 발생했다. 특히 시간이 지날수록 침몰 선박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실종자 생존율이 떨어진다. 집에서 가용 인원을 총동원, 수중 수색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6일 오전 8시 58분께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3km 해상에서 6825t급 청해진해운 소속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했다.

이 배는 전남 오후 9시께 인천여객터미널을 출항해 제주로 가던 길이었다.

이날 사고로 여객선에 타고 있던 경기도 안산 단원고 학생 325명, 교사 15명, 승객 89명, 선원 30명 등 459명 중 8시 현재 164명이 구조됐고 5명이 숨졌다. 나머지 290명은 생사가 확인되지 않아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안산 단원고 학생들은 이날 3박 4일 일정의 수학여행길에 올랐다가 참변을 당했다.

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오후 2시 기준으로 368명이 구조됐다고 밝혔다. 집계 과정의 오류를 파악하고 164명으로 번복했고 탑승객도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면서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장에 도착한 가족들의 항의도 잇따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재 선사 직원 박지영(27)씨와 단원고 2학년 정차웅 군, 남학생으로 보이는 다른 1명, 선원이 확인되

진도 여객선 침몰 탑승자·구조자 현황

오후 8시 현재	총합	학생·교사	일반인	승무원
탑승자	459명	340명	89명	30명
구조자	164명	78명(교사)		
실종자	290명			
사망	5명			

자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인천-제주 권고항로와 세월호 침몰 위치



지 않은 2명 등 5명은 숨진 것으로 확인했다.

이날 구조된 164명 가운데 55명은 해남, 목포, 진도 등지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구조자 가운데 78명은 학생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선박 72척, 항공기 18대를 동원하는 등 인력·장비를 총동원해 생존자 탐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생존자를 찾기 위해 해경·해군·경찰의 잠수인력 178명이 투입됐다.

박근혜 대통령도 “해군과 해경 인력 및 장비, 모든 구조선박 등을 활용해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에게도 전화를 걸어 “해경 특공대도 투입해 선실 구석구석에 남아 있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또 정부서울청사의 중대본을 찾아 진도 해상에서 침몰한 여객선 사고 상황을 점검했다.

박 대통령은 중대본 관계자들로부터 사고 발생부터 구조 및 수색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일몰까지 시간이 없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도 “모든 인원과 물자를 최대한 동원해 구조와 수색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16일 오전 8시 58분께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20km 해상에서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다 사고로 침몰한 6825t급 여객선 세월호가 뱃머리 바닥을 드러낸 가운데 해경과 군당국이 경비정, 특수요원 등을 투입해 실종자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정 총리는 “지금으로부터 10년 후 인명 구조가 최우선”이라며 “아직도 여객선에 남아 있을지 모르는 승객들을 구하는데 가능한 모든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경기 성남의 서울공항으로 귀국하려던 당초 계획을 변경, 이날 밤 10시께 무안공항에 내린 뒤 목포의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서 사고대책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안전행정부·해양수산·교육·보건복지부 장관, 해양경찰청장, 소방방재청장, 해군참모총장, 전남지사, 국

무1차관이 참석한다.

해경 등은 날이 저문 뒤에도 경비정 등을 동원해 야간 수색을 벌일 방침이지만 조류와 바다 시정이 좋지 않아 수색 작업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선박을 인양할 크레인인 17일 오전 현장으로 출발할 예정이다. 한편,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수사본부를 설치, “쿵” 소리가 나더니 배가 갑자기 기울었다”는 일부 구조 승객의 진술을 토대로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섰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임준표수습기자 lotus@kwangju.co.kr

윤장현 “당당히 경선 임하겠다”

광주시장 경선 참여 선언...물·방식 결정은 늦어져

전라공천 논란의 중심에 있는 윤장현 후보가 광주시장 경선 참여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장 후보 경선의 최대 변수였던 ‘전라공천’ 카드가 사실상 소멸됐다. 하지만, 중앙당에서 경선 물과 경선 후보 확정을 하지 않고 있어 광주시장 후보 경선이 본 궤도에 오르기에는 아직 유동적인 상황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윤장현 광주시장 후보는 16일 “전라공천을 바라지 않고 당당히 경선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광주시민을 위해 기득권을 버리고 다시 태어나는 모습으로 새정치를 실현하겠다”며 “경선에 나선 후보들과 당당히 경선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전라공천을 바라지 않는다”며 “중앙당이 정해준 어떤 경선 방식이라도 따르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신당 측 인사인 윤 후보가 경선에 참여하겠다고 밝혔으로써 강운태 광주시장, 이용섭 의원, 윤 후보 3자가 참여하는 광주시장 후보 경선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공천관리위는 이날 전남지사와 전북지사 후보 공천 물과 논의를 진행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장 후보 경선 물과 경선 후보 확정도 이번 주말께나 이뤄질 전망이다. 이처럼 광주시장 후보 경선 물과 경선 후보 확정이 지연되면서 경선 시기도 당초 잠정안이었던 23일에서 다음 달로 늦춰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진도 여객선 침몰사고 특별취재팀 = 최재호 사회부장·송기동 사회2부장·윤현석 정치부 차장·김지혜 사회부 차장·김진수 사진부 기자·박현영 부장(진도주재)·박희석 차장(해남주재)·고규석 차장·김병관 기자(목포주재)

학교설립 60주년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학부 605-1114, 대학원 605-1115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The C-Class 36개월 무이자 할부
062)226-0001

Mercedes-Benz

www.region.go.kr

불편없는 생활을 위해
전국을 56개 지역행복생활권으로 만들어갑니다

- ▶ 편리한 생활 - 이웃 시군의 공공시설을 함께 이용하여 주민의 생활 여건이 개선됩니다
- ▶ 5대 분야 서비스 - 일자리, 교육, 문화, 복지, 의료 서비스를 시군간 연계하여 삶의 질을 높입니다
- ▶ 지자체간 상생발전 - 중북투자방지로 공공시설과 기초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확충합니다

국민이 행복한 선진국으로

지역발전위원회
Presidential Committee on Regional Development